

**인파 증가로 대면 서비스는 개선되었으나 제조업이 정체**

~ 업종 및 지역에 따라 체감경기의 방향성이 나뉘어 ~

(조사대상 2만 5,405사, 유효회답 1만 1,337사, 회답율 44.6%, 조사개시 2002년 5월)

**조사결과의 포인트**

- 1. 2022년 6월의 경기 DI는 전월대비 0.2포인트 증가한 41.4로 4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국내경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요인이 뒤섞인 가운데 업종·지역 간에서 체감경기의 방향성이 나뉘어 4개월 연속 개선되었으나 소폭 변동에 그쳤다. 향후의 경기는 물가상승 추세가 우려요소이나 완만히 상향해 갈 것으로 보인다.
- 2. 4개 업계가 개선, 5개 업계가 악화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진정되어 인파가 정상화되는 가운데 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상향하였다. 한편 공급망에서 부품 조달난이 계속되어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생산활동의 정체 및 원재료 가격 급등이 하락세 요인이 되었다.
- 3. 10개 지역 중 5개 지역이 개선, 4개 지역이 악화, 1개 지역이 보합으로 나타났다. 대형 자동차 생산업체의 감소 및 부품조달 곤란이 관련업종의 체감경기를 하락시킨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조기수요가 호재로 작용하는 등 지역간의 체감경기의 격차는 다시 확대되었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과 「소규모기업」의 체감경기가 개선, 「대기업」은 보합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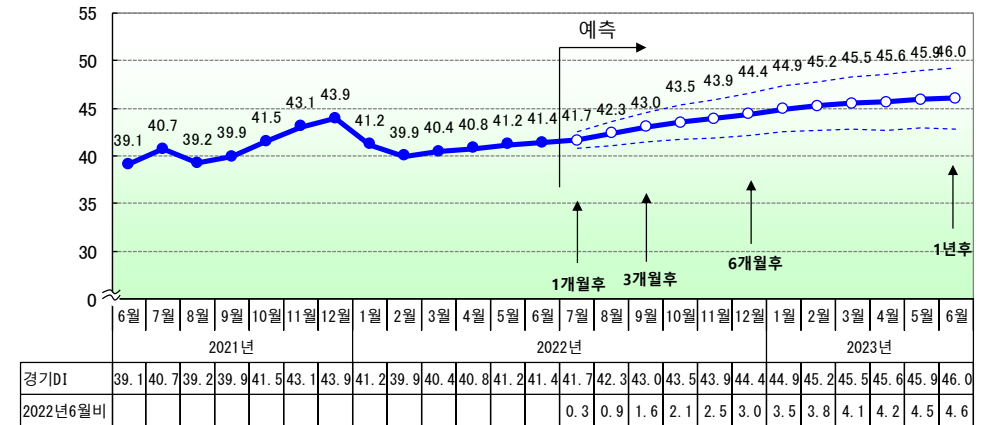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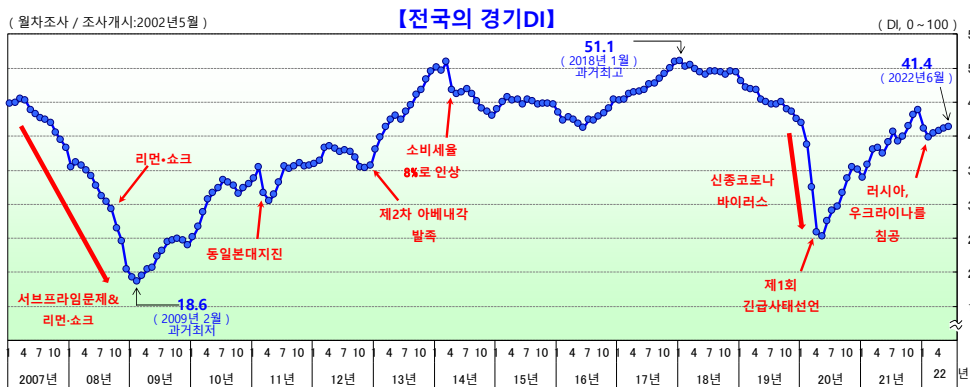
**< 2022년 6월의 동향 : 소폭 개선 >**

2022년 6월의 경기DI는 전월대비 0.2포인트 증가한 41.4로 4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6월의 국내경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진정되어 인파가 돌아오고 있는 가운데 업종 및 지역에 따라 체감경기의 개선·악화가 나뉘는 형태로 추이하였다. 플러스 요인으로는 「코로나 감염자수가 감소하여 서서히나마 업적이 회복되고 있다」(료칸) 등의 목소리도 있듯 각종 이벤트 재개 및 지역민 할인 확대 등 대면 서비스의 정상화가 나타났다. 한편 마이너스 요인으로는 부품의 조달난 등으로 특히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활동 정체가 계속되었다. 원재료 가격에 엔저(円低)가 더해지는 가운데 잇따른 가격상승은 소비자심리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국내경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요인이 뒤섞인 가운데 업종·지역간에서 체감경기의 방향성이 나뉘어 4개월 연속 개선되었으나 소폭 변동에 그쳤다.

**< 향후의 전망 : 물가상승이 우려요소이나 완만히 상향 >**

향후 1년간 정도의 국내경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세의 행방 및 엔저(円低)의 진행, 원유·원재료 가격의 고공행진, 해외경제동향 등 불투명한 외부환경 가운데 추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스트 증가에 따른 기업의 수익력 저하는 우려요소가 될 것이다. 한편 신종 코로나 감염 상황에 따르나 GoTo 캠페인 등의 수요회기책이나 2021년도 보정예산 집행, 물가대책, 외국인 관광객 수용 재개 등의 경제정책은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개인소비 회복 및 자동차 만회생산 등이 향후의 경기를 상향시킬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의 경기는 물가상승 추세가 우려요소이나 완만히 상향해 갈 것으로 보인다.



※경기예측 DI는 ARIMA 모델에 경제통계를 더한 Structural ARIMA 모델로 분석. 점선은 예측치의 폭(예측구간)을 나타내고 있다.